

## 보조 임플란트의 임상적 활용



주상돈\*, 박진우, 이재목, 서조영  
대구 예치과 의원\*,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임플란트가 소개된 후 부분 무치악 혹은 완전 무치악의 많은 환자에게 기능 회복을 도와 주었다. 그러나 임플란트 식립 후 골 유착되는 3-6개월 치유기간 동안 부분 무치악 상태로 있는 것은 환자로 하여금 정신적, 신체적으로 힘들게 할 수 있다. 특히 치조골 증대술(bone augmentation)이나 막을 이용한 골유도재생술을 시술한 부위에 가해지는 틀니에 의한 하중은 골 융합을 방해할 수 있으며, 또한 2-4주간 틀니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환자로 하여금 더욱 일상생활을 지내기 힘들게 할 수 있다.

최근 들어 임플란트 식립 후 즉시 기능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. 이에 반해 보조 임플란트는 영구 임플란트에 하중을 가하지 않고 즉시 기능이 가능하다. 임플란트 시술 후 3-10일 이내에 보조 레진 치아를 장착하여 저작이 가능할 뿐 아니라, 골이식 부위와 식립 되어 있는 영구 임플란트를 조기 부하로부터 보호하며, 또한 이런 시술이 활발히 시행되면 영구 임플란트의 즉시 기능의 연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.

본 교실에서는 상악 무치악 40대 여성환자와 40대 남성환자에게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MDI회사의 IMTEC과 메가젠의 intermezzo implant의 보조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임시틀니를 하지 않고 레진 계속 가공의 치를 사용하여 환자로 하여금 기능성 및 심미성을 회복하여 다소의 만족도를 얻어 이에 발표하고자 한다.

### 연자 약력

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
경북대학교 치주과 레지던트 수료  
경북대학교 박사과정  
대구 예치과 의원 원장